

AI로 진짜 돈 버는 법 -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AI 수익화 (v3 - 비개발자 최적화판)

[0:00-0:30] HOOK - 채널 소개와 시리즈 방향

ChatGPT 써보고 "별로던데?" 하셨다면, 당연합니다. 웹사이트에서 쓰는 방식의 구조적 한계니까요.

이 채널에서는 **AI를 통한 자동화**를 다룹니다.

기술만 다루는 채널은 이미 많습니다. 근데 기술만 설명하면 "AI가 뭘 할 수 있고, 내가 뭘 해야 하는지" 안 와닿아요.

그래서 이 채널은 **비즈니스와 기술, 둘 다** 다룹니다.

완전 자동화는 이론상 가능합니다. 하지만 지금 당장 100%는 아니에요. 내가 자는 동안 AI가 돈 버는 시스템, 이론상 가능할 것 같은 꿈같은 비전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만들어가 봅시다.

오늘은 그 첫 시간:

- AI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
-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는 비밀

이 두 가지입니다.

[0:30-0:45] PROBLEM - 공감대 형성

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좋을 분들은 이런 분들이에요.

"AI 공부해야지"라고 결심했지만 어디서부터 해야할지 모르겠거나 AI로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는 분. 업무 효율을 개선해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싶으신 분.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.

[0:45-1:45] AGITATE - ChatGPT가 별로였던 진짜 이유

아마 ChatGPT 정도는 다들 써보셨을 겁니다. 그런데 막상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

"범용적인 답변만 나와서 나에게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더라" "결과가 엉뚱하게 나와서 수정하느라 더 오래 걸렸어"

이거 다 정상이에요. 왜냐면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.

ChatGPT 웹사이트는 구조적으로 이런 한계가 있어요:

한계 1: 맥락을 매번 설명해야 함 "내가 운영하는 쇼핑몰은 핸드메이드 악세사리 전문이고, 타겟은 20대 여성이고..." → 복불 저장해놨다가 새 채팅 열 때마다 붙여넣기 → 귀찮아서 결국 안 씀

한계 2: 범용 답변만 나올 수밖에 없음 왜냐고요? AI가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니까요. "인스타 마케팅 전략 알려줘" → 누구나 아는 일반론만 "내 제품에 맞는 구체적 전략은?" → "제품 정보 더 알려주세요" → "이 정도면 뭐..." 하고 포기

한계 3: 대화 길어지면 앞 내용 까먹음 하나의 채팅창에서 10번쯤 대화하면 AI가 앞에서 했던 얘기 까먹기 시작 → 일관성 깨짐, 이상한 답변 → 새로운 채팅창 열어서 또 맥락 설명부터...

결국 이렇게 되죠.

"아... 이럴 바에 그냥 내가 하는 게 낫지 않나?"

이건 여러분이 못해서가 아니에요. ChatGPT 웹사이트의 구조적 한계예요.

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AI를 내 컴퓨터에 직접 설치해서 사용해야합니다.

"내 컴퓨터에 설치?"

네, 마치 한글이나 포토샵을 내 컴퓨터에 깔듯이, ChatGPT나 Claude 같은 AI를 내 컴퓨터에서 직접 쓸 수 있어요.

"그럼 인터넷 없이도 돼?"

아니요, 정확히는 AI 자체가 내 컴퓨터에 있는 건 아니고, AI랑 대화하는 프로그램을 내 컴퓨터에 설치하는 거예요. 마치 카카오톡 앱을 깔아서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요.

편의상 "PC에 설치해서 쓴다"라고 표현할게요.

이렇게 하면 위의 3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이 이야기는 뒷 부분에서 다시 하기로 하고.

[1:45-3:15] SOLUTION INTRO - 두 갈래 길 (인식 전환의 핵심)

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. 우리는 어떻게 AI를 바라봐야 할 것인가?

우리에게 AI는 똑같이 주어졌는데, 어떤 사람은 월 300만원 버는데 그치고, 어떤 사람은 월 3000만원을 혼자서 만들어냅니다.

뭐가 다를까요?

AI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.

제가 임의로 두 그룹으로 나눠볼게요.

첫 번째 그룹: "AI를 도구로 보는 사람들"

"ChatGPT한테 가끔 질문하긴 해. 귀찮은 거 부탁하는 정도?"

"범용적인 대답만 나오긴 하는데 뭐, 그냥 참고만 하지."

"요즘 좋은 AI 서비스 뭐 있어요?" 물어보고는 "와 너무 많네, 나중에 봐야지."

"맨날 새로운 게 나오고 바뀌니까, 좀 정리되면 그때 제대로 배워야겠다."

이 사람들의 핵심 태도: "기다림"

- AI가 더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쓰게 되겠지
- 기술이 안정화되면 그때 배우지 뭐

두 번째 그룹: "AI를 내 직원처럼 만드는 사람들"

"범용적인 답변이 나오는 게 문제라면, 내 맥락을 학습시키면 되잖아?"

"가끔 쓰는 게 아니라, 매일 쓰는 나만의 AI 시스템을 만든다."

"지금 주어진 AI만으로도 나만의 업무 흐름을 만들 수 있어."

"새 기술이나 서비스 나올 때마다 **'이걸 나한테 적용하면?**'을 먼저 생각한다."

이 사람들의 핵심 태도: "효율 개선"

- 반복적인 업무나 비정형화된 일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민하고
- AI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, 지침을 다시 개선하고 꾸준히 개선해나감

핵심 차이가 뭘까요?

첫 번째 그룹은 AI를 계산기처럼 봐요. 가끔 꺼내 쓰는 도구. 범용적 답변이 나와도 "뭐 이 정도면 되지" 하고 넘어가요.

첫 번째 그룹 사람들한테 "AI가 이렇게 좋아요"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뀌어요.

왜냐고요? AI에 대한 첫인상 때문에 생각이 고정됐거든요.

"AI가 내가 써보니까 범용적인 대답만 하던데? 그렇게 스페셜하지 않은데?"

근데 두 번째 그룹은 핵심 열쇠를 알고 있어요.

"어떻게 하면 AI의 퀄리티를 내 상황에 맞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지."

그 방법을요.

왜 지금이 기회인가?

AGI(인간 수준 범용 AI) 5단계를 한번 볼게요.

AX 시대(AI로 모든 게 바뀌는 시대)가 도래하면 어떤 식으로 변할지 상상해볼 수 있는데요.

5년 뒤나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, 우리는 곧 AGI 시대에 있을 거고, 누구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AI가 운영하는 회사에게 외주를 맡길 겁니다.

최소 기능 제품(MVP)을 구축하고 검증하고 마케팅까지 집행하려면 지금은 최소 천만원에서 5천만원은 줘야 할 텐데, 그때가 되면 오백만원 정도면 AGI가 제품도 만들어주고, 효율적인 마케팅 방안도 제시해줄 거예요.

AGI 시대보다는 AX로 넘어가는 지금 시대가 오히려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.

근데 막상 보면 AI를 제대로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적어요.

그럼 어떻게 다루는 게 AI를 제대로 다루는 거냐?

힌트는 AI를 내 컴퓨터에 설치해서 쓰는 방식에서 출발합니다.

ChatGPT 웹사이트처럼 브라우저에서 쓰는 게 아니라, **내 컴퓨터에 직접 설치해서 쓰는 거예요.**

"뭐가 다른데?"

핵심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.

AI가 내 컴퓨터의 파일을 직접 읽을 수 있다는 것.

이게 왜 게임 체인저냐면:

ChatGPT 웹사이트:

- 매번 맥락을 복불해서 설명해야 함
- 내 프로젝트 상황을 모름 → 범용 답변만

내 컴퓨터에 설치한 AI (예: Claude Code):

- 내 프로젝트 풀더 전체를 읽고 이해
- 내가 원하는 답변 형태로 대답하게 만들 수 있고
- AI 담당자를 만들고 유기적으로 일을 시키는 게 가능해요.

대표적인 게 **Claude Code**예요. (Claude라는 AI를 내 컴퓨터에서 파일과 연동해 쓸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)

이게 바로 두 번째 그룹 사람들이 아는 비밀입니다.

사실 Claude Code 자체는 비밀도 아닙니다. 이미 많은 개발자들이 사용하고 있어요.

근데 핵심은 이겁니다.

우리는 이걸 단순히 기술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, 비즈니스 인프라로 바라봐야 합니다.

개발자들은 "코딩 도구"로 씁니다. 우리는 "수익화 시스템"으로 씁니다.

이게 차이예요.

[4:00-4:45] 비전 제시 - 이걸로 뭘 만들 수 있나

내 컴퓨터에 설치한 AI로 뭘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.

첫 번째, 초기능 비서 내 프로젝트 맥락을 완벽히 이해하는 AI 비서. 매번 맥락 설명 안 해도 내 상황에 딱 맞는 답변.

두 번째, 업무별 전담 에이전트 특정 일만 전담하는 AI 담당자.

- 콘텐츠 기획 담당
- 자료 검토 담당
- 고객 응대 담당 각자 자기 분야만 완벽하게 처리.

세 번째, AI 에이전트 조직 에이전트끼리 서로 협업하게 만들기. 한 에이전트가 작업 → 다른 에이전트가 검토 → 결과를 나에게 전달 나 혼자서도 10명 팀처럼 일할 수 있어요.

실제로 지금 해외에서는 개발자 1명이 AI를 활용해서 월 1억 버는 **SaaS(구독형 웹 서비스)**를 혼자 운영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요.

이런 맥락에서 "1인 유니콘 시대"가 온다고 하는 거죠.

"그거 천재들 이야기 아냐?"

아니에요. 핵심은 **"AI에게 내 맥락을 학습시키는 방법"**을 아는 거예요.

기술이 더 좋아지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, 지금 주어진 도구로 나만의 AI 조직을 만드는 것.

바로 이게 AI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입니다.

그 첫 단계가 바로 **Claude Code**입니다.

[4:45-5:15] 첫 번째 관문 - 설치

내 PC에 AI를 설치하면, 내 폴더와 파일에 접근할 수 있고, 그럼 AI가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맥락을 알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.

이를 응용해서 내 비즈니스 모델을 통째로 이해하고, 내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서, 내 상황에 딱 맞는 전략을 제시하고, 실제로 실행 가능한 콘텐츠까지 만들어주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.

단순히 "AI한테 블로그 글 하나 써달라고 하는 법"이 아니에요.

"AI를 내 비즈니스의 핵심 인력으로 만드는 과정"을 우리 같이 만들어가 보는 겁니다.

설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

자, 여기서 첫 번째 관문입니다.

Claude Code와 VS Code(코드 편집 프로그램, 무료)를 설치하세요

솔직히 말씀드리면, 설치가 쉽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.

비개발자분들한테는 생소한 과정일 겁니다.

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.

이 정도는 블로그나 유튜브 검색하면 나옵니다.

영상 더보기란에 설치 관련 링크를 찾아서 옮겨둘 테니 참고하셔서 설치를 진행해보세요. 만약 설치 중에 막히시더라도 찾아가시면서 꼭 설치하시기 바랍니다.

[5:00-6:30] VALUE DELIVERY 2 - 웹사이트 방식 vs 내 컴퓨터 방식의 진짜 차이

GPT를 좀 쓰신다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

ChatGPT 웹사이트에서 **나만의 GPT 만들기**, **맞춤 지침 작성하기**, **데이터 파일 연결하기**, **MCP(AI에게 외부 정보를 연결해주는 플러그인)** 같은 거 활용해서 정확한 답변 받기.

솔직히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합니다. 대부분 사람보다 훨씬 잘 쓰고 계신 거예요.

근데 이건 '자동화'가 아니에요.

이건 그냥 **"내가 더 정확한 결과를 빨리 받는 방법"**이에요.

입력과 출력을 최적화한 거죠. 효율적인 업무 방법이지, 제가 말하는 진짜 자동화와는 다릅니다.

진짜 자동화는 사람의 개입이 없는 거죠.

어떻게 사람 개입이 없는 자동화를 시작해볼 수 있을까요? 사실 완벽한 자동화를 만드는 건 어렵습니다만, 이론상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

이를 가능하게 하는 Claude Code에는 세 가지 핵심 구성 요소가 있어요:

1. Skills (스킬) - 전문 도구

- 명확한 입력과 출력이 정해진 함수 같은 도구
- 예: "유튜브 대본 분석 스킬", "랜딩 페이지 작성 스킬", "PPT 슬라이드 추출 스킬"
- 언제 쓰나? 정해진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야 할 때

- 마치 엑셀 함수처럼, 입력 넣으면 원하는 결과가 나옴

쉬운 비유: 자판기 → 버튼(입력) 누르면 커피(결과)가 나옴. 매번 똑같은 커피.

2. SubAgent (서브 에이전트) - AI 직원

- 특정 역할과 규칙을 가진 AI 담당자
- 예: "콘텐츠 기획 담당", "자료 검토 담당", "고객 응대 담당"
- 언제 쓰나? 복잡한 판단이 필요한 업무를 맡길 때
- 마치 실제 직원처럼,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 일을 처리함

쉬운 비유: 바리스타 → "달달한 거 주세요" 하면 내 취향 기억하고 상황 보고 판단해서 음료 추천

3. Commands (커맨드) - 업무 흐름 자동화

- 여러 SubAgent들을 조율하고 협업시키는 프로세스
- 예: "분석 담당이 리서치 → 기획 담당이 구조화 → 작성 담당이 실행 → 검수 담당이 최종 확인"
- 언제 쓰나?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복잡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
- 마치 프로젝트 관리자처럼, 전체 과정을 자동으로 조율함

쉬운 비유: 카페 매니저 → "아메리카노 10잔 준비"라고 하면 바리스타1, 바리스타2, 캐셔한테 알아서 일 분배하고 조율

예시: AI 콘텐츠 제작 조직 만들기

이해를 돋기 위해 실제 예시를 들어볼게요.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방식으로 한다면.

웹사이트 방식 (효율화):

- 나: "유튜브 대본 써줘"
- GPT: 범용 대본 작성
- 나: "아니 우리 채널 톤앤매너는 이거고..."
- GPT: 수정된 대본
- 나: "썸네일 문구도 만들어줘"
- GPT: 썸네일 문구

→ 매번 내가 요청해야 함. 빠르긴 한데, 자동화는 아님

내 컴퓨터에 설치한 AI 조직 방식 (자동화):

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(실제 진행 과정):

명령어: /콘텐츠-제작-파이프라인 실행

1. AI 직원: 시장조사 담당
→ 트렌드 분석, 경쟁 콘텐츠 리서치
2. AI 직원: 기획 담당
→ 리서치 결과 기반 콘텐츠 기획안 작성
3. 자동 도구: 유튜브-대본-프레임워크
→ 7단계 구조로 대본 생성

4. AI 직원: 품질검수 담당
 → 우리 채널 톤앤매너 가이드 기준으로 검수

5. 자동 도구: 썸네일-문구-생성
 → 최종 대본 기반 썸네일 카피 자동 생성

결과물:

- 완성된 대본 (우리 스타일로)
- 썸네일 문구 3개 옵션
- 다음 콘텐츠 추천 3개

→ 한 번 명령하면 전체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돌아감

이게 가능한 이유

내 컴퓨터에 설치한 AI는 내 컴퓨터의 파일을 직접 읽고 쓸 수 있어요.

그래서:

- 자동 도구(Skills)는 내가 만든 템플릿 파일을 읽어서 작업
- AI 직원(SubAgent)은 내 프로젝트 폴더의 모든 맥락을 이해하고 판단
- 업무 흐름(Commands)은 내가 정의한 프로세스 파일대로 실행

한 번 세팅하면, 계속 진화합니다.

내 프로젝트가 커질수록, 문서가 많아질수록, AI 조직도 똑똑해져요.

웹사이트 방식과의 차이를 정리하면:

구분	웹사이트 (ChatGPT)	내 컴퓨터 (Claude Code)
비유	식당에 가서 주문	내 집에 요리사 고용
맥락 이해	매번 설명 필요	내 상황 완전 파악
파일 접근	불가능	내 파일 자유롭게 읽기
자동화	불가능 (내가 계속 지시)	가능 (한 번 명령으로 전체 실행)

다음 영상에서

실제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만드는지, 어떻게 조합하는지 앞으로 계속해서 연재해나갈 테니 주제가 마음에 든다면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.

[6:30-7:30] CTA

오늘 핵심:

ChatGPT 웹사이트 = 효율화 (빠른 답변) 내 컴퓨터에 설치한 AI = 자동화 (AI 조직 구축) 세 가지 구성 요소:

- Skills(자동 도구, 자판기처럼)
- SubAgent(AI 직원, 바리스타처럼)
- Commands(업무 흐름, 매니저처럼)

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:

AI를 "가끔 쓰는 도구"로 보지 말고, "매일 일하는 조직"으로 만드세요.

오늘 할 일:

1. Claude Code 설치 (설명란 링크)
2. VS Code 설치 (설명란 링크)
3. 생각해보기: 내 업무 중 어떤 프로세스를 AI 조직으로 만들 수 있을까?

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.

AI가 더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. 지금 주어진 도구로 나만의 AI 조직을 만들기 시작하세요.

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